

경제주평

-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목 차

■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12
4. 시사점	17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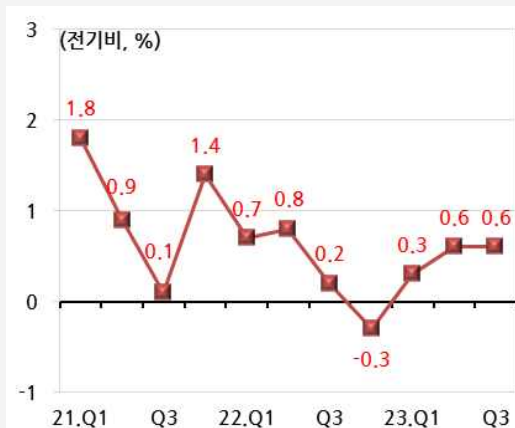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 개 요

(경기 하강 국면 지속과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 4분기에도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전환점 형성에 대한 기대도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동일한 전기비 0.6%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수입이 감소하여 플러스 성장)와 달리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성장 구조가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경기 회복력의 강도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전기비 $\Delta 2.7\%$)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경기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1월 99.3p를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하면서 10월 기준 99.1p로 지난 1월의 저점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98.5p) 저점을 형성한 이후 6개월 연속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침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비)은 9월 0.1%에서 10월에 다시 침체($\Delta 0.8\%$)되었으며, 1년 전(전년동월비)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폭의 감소세($\Delta 4.4\%$)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

용차, 가구, 통신기기·컴퓨터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설비투자 침체 장기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투자를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 중이다.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비($\Delta 3.3\%$) 및 전년동월비($\Delta 9.7\%$) 기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는 10월 전년동월비 $\Delta 19.0\%$ 로 '22년 10월 이후 만 1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 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하며, 10월에 들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0월 증가율(전년동월비)이 6.8%를 기록하였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10월에 들어 전년동월비 26.6%로 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추세적인 경기 상승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수출 경기 반등)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8%로 10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11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여 11월 무역수지는 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EU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11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비 $\Delta 0.2\%$ 로 '22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확연히 축소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12.9%)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자동차(21.5%), 이차전지(23.4%), 선박(38.5%) 등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형상 호조 속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제조업 및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장·노년층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하락하였다.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4만 6,000명으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신규 일자리는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연령 대별로는 장·노년층 중심으로 창출되는 모습이다.

(스티키 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고 있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스티키 인플레이션, sticky inflation, 끈적한 고물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수입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Delta 9.6\%$ 에서 10월에 $\Delta 10.2\%$ 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생산자물가도 9월 전년동월대비 1.4%에서 10월에 0.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10월 소비자물

가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기저효과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 등으로 9월의 전년동월대비 3.7%보다 소폭 상승한 3.8%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3%대를 지속 중이다.

(경제 심리 부진)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월에 97.2p로 지난 7월(103.2p)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0월 64p에서 11월 62p로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중이다. 다만, 향후경기전망 CSI는 72p로 10월의 70p에서 반등하였다.

한편 기업 심리지수를 보면, 한경협 BSI(전망)는 11월 90.1p에서 12월에 94.0p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한은 12월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69p로 11월과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지난 6월(76p) 이후 하락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0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건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생산 회복 속도가 약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반등하던 출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수요 여건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서비스업)**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이 9월(전월비 0.5%)에서 10월에 $\Delta 0.9\%$ 로 크게 하락하였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0월 중 토목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건축 부문이 크게 반등(전년동월비 48.6%)하였다.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는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코로나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복원력이 취약해져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3.5%로 하락하였다. 또한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

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를 상회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5%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2.9%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격차(한국 - 세계)는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Delta 0.3\%p$ 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Delta 0.5\%p$ 로 하락하고, 향후(2022~2028년) $\Delta 1.0\%p$ 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 회복의 동인을 해외에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회복력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복원력이 과거 경험상의 강도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상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때, 수출 경기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더 약화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기 간	세계경제성장률 (연평균)	한국경제성장률 (연평균)	한국 - 세계 경제성장률
2003~2008	4.8%	4.5%	$\Delta 0.3\%p$
2011~2019	3.5%	2.9%	$\Delta 0.5\%p$
2022~2028	3.1%	2.2%	$\Delta 1.0\%p$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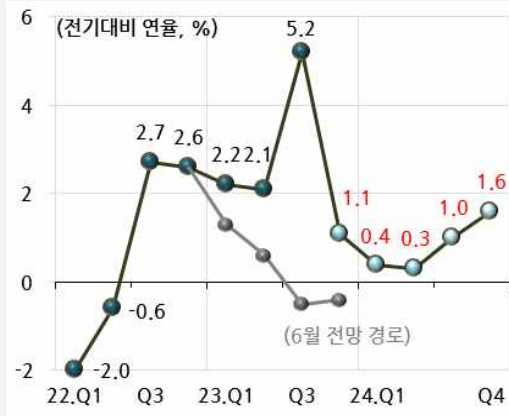
주: 경제 위기가 있던 연도와 직후 연도는 경제성장률 계산에서 제외.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 경제는 고용 지표의 악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위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3.5%에서 10월 3.9%까지 상승하였으며, 구인일자리수도 1월 1,056만 명에서 9월 955만 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소매판매도 4월~8월까지 증가세(전월비)를 지속하였으나, 10월에 들어 $\Delta 0.1\%$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연율 5.2%의 호조를 보였으나, 11월 기준 주요 IB들의 향후 미국 경제성장률은 4분기 1.1%, 그리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각각 0.4% 및 0.3%의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나,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 중이다.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LPR(1년 만기)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Delta 0.2\%$ 이며, 생산자물가는 $\Delta 2.6\%$ 로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빠른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BEA, 주요 IB 전망치 평균.

<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國家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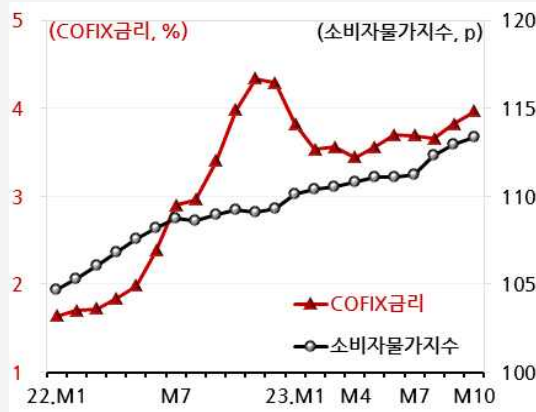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미래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부진한 모습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추세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2022년 1월 104.69p에서 올해 10월 113.37p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또한, 시장금리(COPIX금리)도 2022

년 1월 1.64%에서 11월 4.34%로 높아졌다가 이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10월 3.97%에 달하고 있다. 즉 고물가·고금리가 동반되면서 가계가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급감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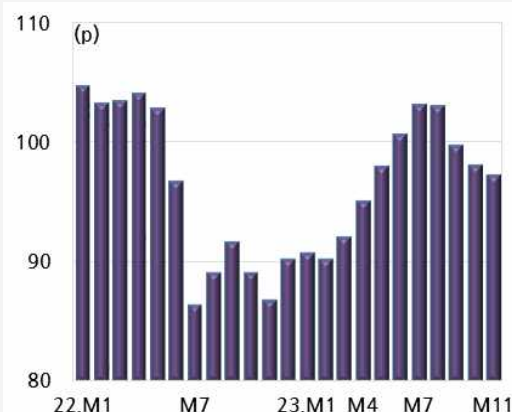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실질 구매력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1월(90.7p)에서 7월(103.2p)까지 상승하며 기준치 100p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97.2p로 기준치를 하회 중이다.

< COFIX금리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통계청.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3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거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견인되지 못할 경우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U자형 저속(低速) 회복(2024년 상저하고) 시나리오는 수출이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경기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되어 2024년 1분기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자형 침체 장기화(2024년 상저하저) 시나리오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2024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이다. 현재로서는 U자형 저속(低速) 회복 경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 예상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세가 미흡할 경우 L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2024년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1. 개요

○ (경기 하강 국면 지속과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 4분기에도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전환점 형성에 대한 기대도 상존

- 3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기대비 0.6%를 기록

·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동일한 전기비 0.6%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수입이 감소하여 플러스 성장)와 달리 소비와 수출이 반등하였음

·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전기대비 0.3%), 건설투자(2.2%), 수출(3.5%) 등이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2.7%)는 감소함

-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경기 바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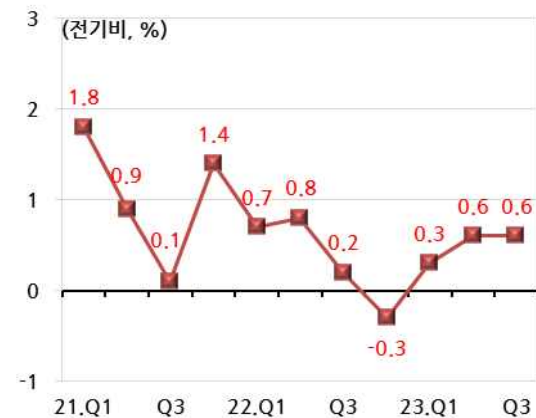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1월 99.3p를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99.6p, 8월 99.4p, 9월 99.2p, 10월 99.1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98.5p) 저점을 형성한 이후 6개월 연속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함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99.3p, 8월 99.3p, 9월 99.4p, 10월 99.7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침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

- 10월 소매판매는 다시 침체되었으며, 1년 전(전년동월비)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9월 0.1%에서 10월 $\Delta 0.8\%$ 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분기 $\Delta 0.3\%$, 3분기 $\Delta 2.6\%$, 8월 $\Delta 0.3\%$, 9월 0.1%, 10월 $\Delta 0.8\%$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0.2\%$, 3분기 $\Delta 2.8\%$, 8월 $\Delta 4.7\%$, 9월 $\Delta 2.0\%$, 10월 $\Delta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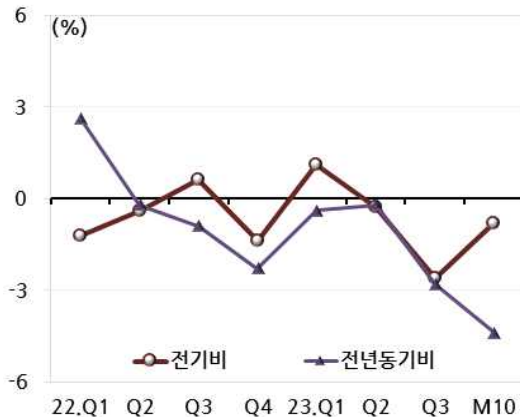
- 준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까지 큰 폭으로 감소

·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가구, 통신기기·컴퓨터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3.2%, 3분기 $\Delta 1.2\%$, 8월 $\Delta 1.9\%$, 9월 $\Delta 3.0\%$, 10월 $\Delta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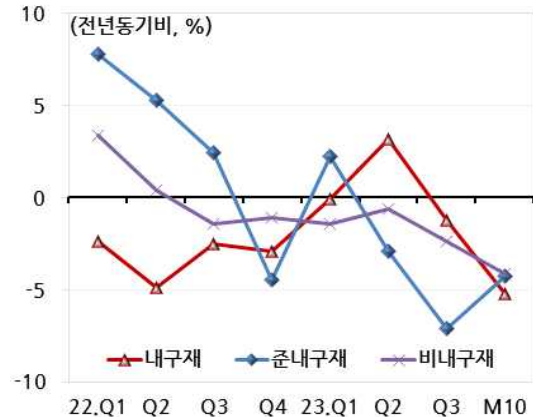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0.6\%$, 3분기 $\Delta 2.4\%$, 8월 $\Delta 5.6\%$, 9월 0.4%, 10월 $\Delta 4.1\%$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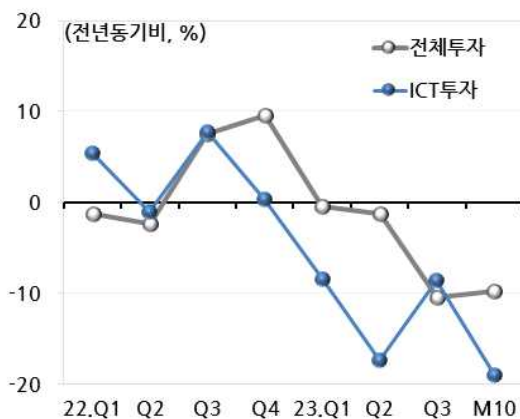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침체 장기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투자를 중심으로 침체 지속

-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기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10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비 $\Delta 3.3\%$, 전년동월비 $\Delta 9.7\%$ 를 기록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1.2\%$, 3분기 $\Delta 10.5\%$, 8월 $\Delta 14.6\%$, 9월 $\Delta 5.6\%$, 10월 $\Delta 9.7\%$
 -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는 전년동월 기준으로 '22년 10월 이후만 1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함
 -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17.4\%$, 3분기 $\Delta 8.6\%$, 8월 $\Delta 8.3\%$, 9월 $\Delta 6.3\%$, 10월 $\Delta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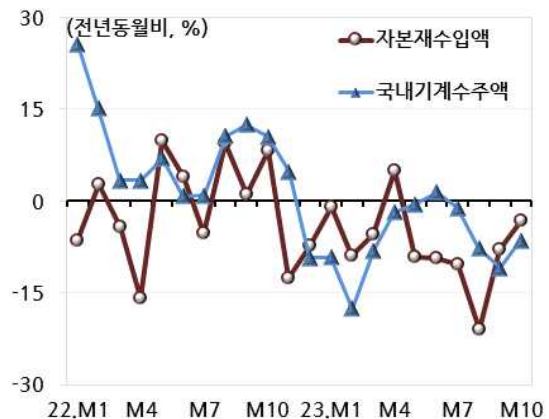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경기 하강 지속 신호를 보이면서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을 시사
 - 자본재수입액은 지난 5월 소폭 반등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임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7월 $\Delta 10.3\%$, 8월 $\Delta 21.0\%$, 9월 $\Delta 7.9\%$, 10월 $\Delta 3.3\%$
 - 10월 국내기계수주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추세적인 침체국면으로 판단됨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¹⁾: 7월 2.5%, 8월 $\Delta 24.5\%$, 9월 $\Delta 10.7\%$, 10월 15.8%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 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이며, 10월에 들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반등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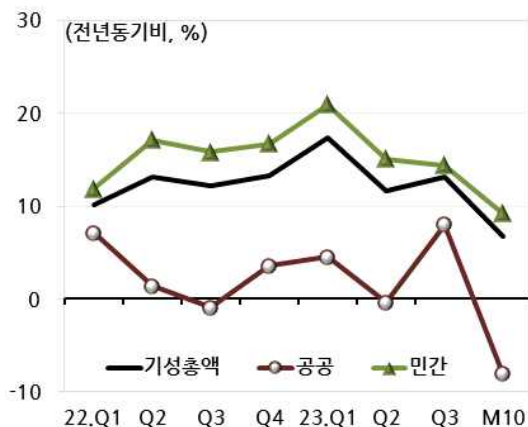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최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6.8%로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11.7%, 3분기 13.2%, 8월 12.9%, 9월 14.5%, 10월 6.8%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감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0.4%, 3분기 8.0%, 8월 3.6%, 9월 22.8%, 10월 △8.1%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15.1%, 3분기 14.4%, 8월 14.9%, 9월 13.0%, 10월 9.2%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10월에 들어 반등하였으나,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추세적인 경기 상승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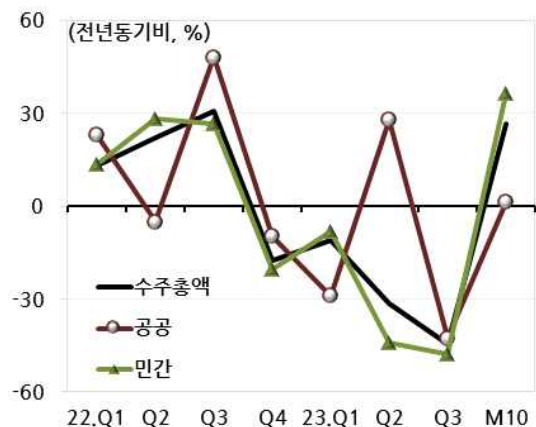
- 10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6.6%로 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임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31.5%, 3분기 △44.7%, 8월 △52.2%, 9월 △35.1%, 10월 26.6%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27.8%, 3분기 △42.5%, 8월 △39.7%, 9월 △64.2%, 10월 1.3%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44.0%, 3분기 △47.9%, 8월 △55.1%, 9월 △38.6%, 10월 36.2%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반동)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11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1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8%로 10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수출액 증가율: 6월 △6.0%, 7월 △16.2%, 8월 △8.1%, 9월 △4.4%, 10월 5.1%, 11월 7.8%

· 한편, 11월 중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여 11월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감

- 對미국 수출은 호조를 지속 중이나, 對중국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對 EU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

· 11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비 △0.2%로 '22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對중국 수출증가율: 6월 △19.0%, 7월 △24.9%, 8월 △19.8%, 9월 △17.6%, 10월 △9.6%, 11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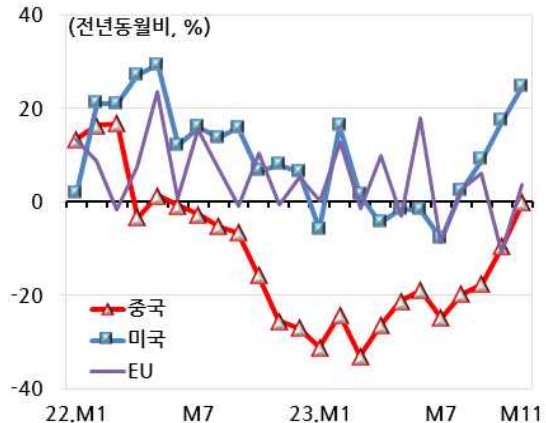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12.9%)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자동차(21.5%), 이차전지(23.4%), 선박(38.5%), 유화(5.9%) 등이 호조세를 지속함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외형상 호조 속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제조업 및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장·노년층 일자리는 증가

-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²⁾)도 하락

· 10월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22년 10월 2.4%)에서 개선되었으며, 10월 확장실업률도 8.1%로 전년동월의 9.5%보다 하락함

-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4만 6,000명으로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는 서비스업과 장·노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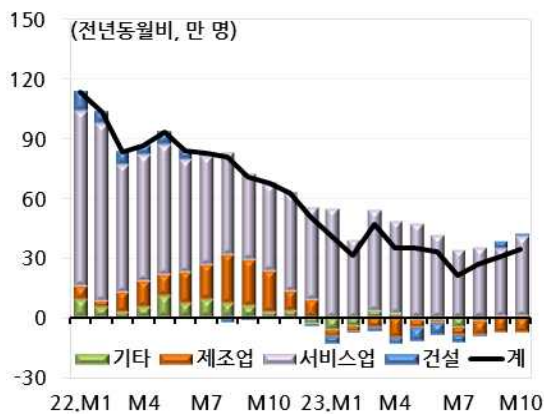
· 10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34.6만 명으로 '21년 3월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취업자 증감(YoY): 6월 33.3만 명, 7월 21.1만 명, 8월 26.8만 명, 9월 30.9만 명, 10월 34.6만 명

·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7.7만 명, 건설업 1.4만 명, 서비스업 39.9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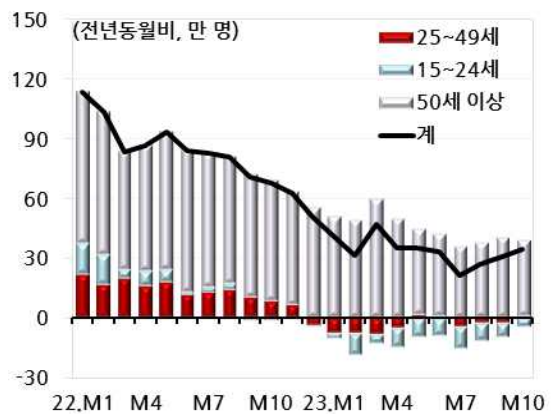
· 한편, 10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전년동월비 38.7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됨(15~24세 △4.6만 명)

< 주요 산업별³⁾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스티키 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고 있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

- 10월 중 수입물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 10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물가가 모두 하락하여 $\Delta 10.2\%$ 의 감소세를 기록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7월 $\Delta 13.6\%$, 8월 $\Delta 9.2\%$, 9월 $\Delta 9.6\%$, 10월 $\Delta 10.2\%$

·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농림수산물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고 전력·가스·수도·폐기물과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9월 1.4%에서 10월에 0.8%로 하락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6월 $\Delta 0.3\%$, 7월 $\Delta 0.3\%$, 8월 1.0%, 9월 1.4%, 10월 0.8%

- 10월 소비자물가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기저효과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 등으로 9월의 3.7%보다 소폭 상승한 3.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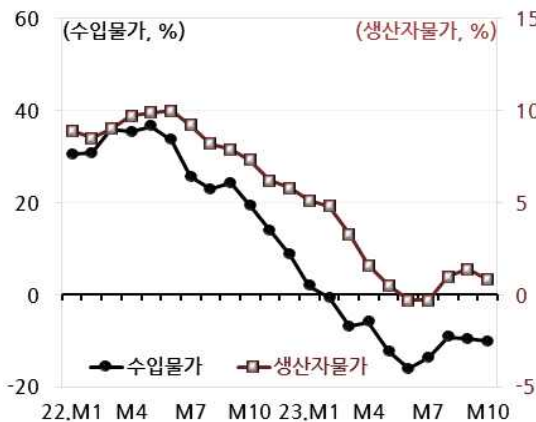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9월보다 소폭 상승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6월 2.7%, 7월 2.3%, 8월 3.4%, 9월 3.7%, 10월 3.8%

·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9월 4.4%에서 10월에 4.6%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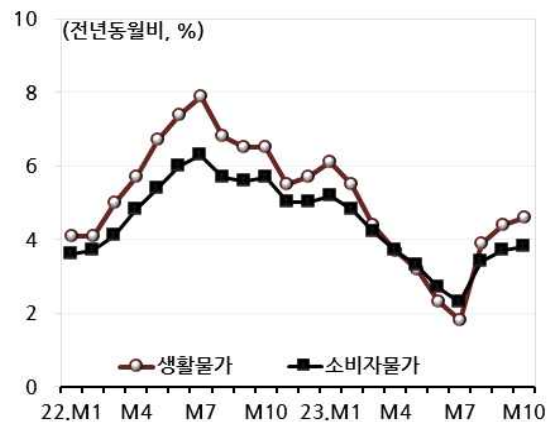
※ 생활물가상승률(YoY): 6월 2.3%, 7월 1.8%, 8월 3.9%, 9월 4.4%, 10월 4.6%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 (경제 심리 부진)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

-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에 97.2p로 지난 7월(103.2p)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0월 64p에서 11월 62p로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감소함

※ 현재경기판단 CSI: 6월 69p, 7월 75p, 8월 72p, 9월 66p, 10월 64p, 11월 62p

· 다만, 11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72p로 10월의 70p에서 반등함

※ 향후경기전망 CSI: 6월 78p, 7월 84p, 8월 80p, 9월 74p, 10월 70p, 11월 72p

- 12월 중 한경협 BS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한은 BSI는 보합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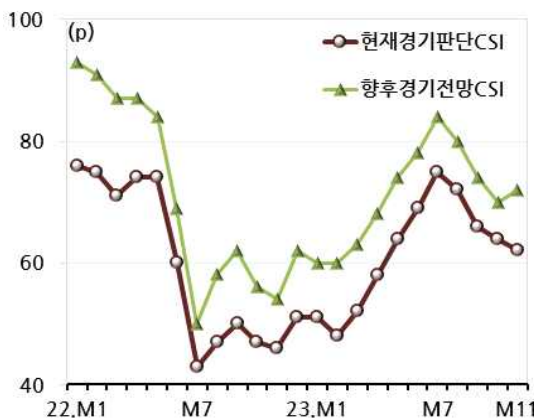
· 한경협 BSI(전망)는 11월 90.1p에서 12월에 94.0p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를 하회함

※ 한경협 BSI(전망): 6월 90.9p, 7월 95.5p, 8월 93.5p, 9월 96.9p, 10월 90.6p, 11월 90.1p, 12월 94.0p

· 반면, 한은 12월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69p로 11월과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지난 6월 이후 하락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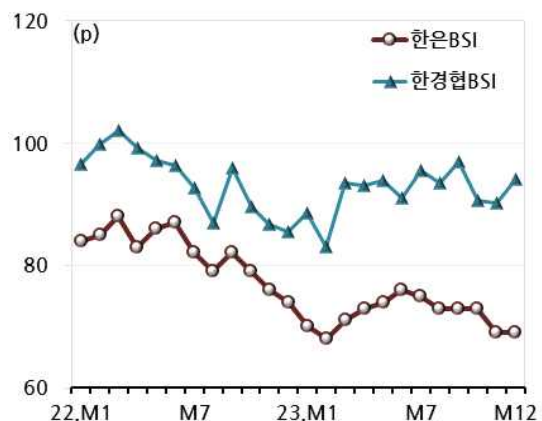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6월 76p, 7월 75p, 8월 73p, 9월 73p, 10월 73p, 11월 69p, 12월 69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10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건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10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전월비 기준으로는 전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9월 2.7%에서 10월에 1.0%로 증가세가 축소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6월 0.6%, 7월 △1.4%, 8월 1.2%, 9월 2.7%, 10월 1.0%

· 전월비 기준으로는 9월 1.0%에서 10월에 △1.6%의 감소세로 전환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6월 0.0%, 7월 △0.8%, 8월 1.9%, 9월 1.0%, 10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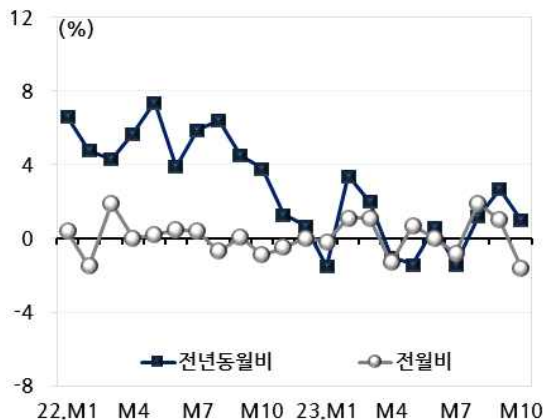
- 10월 중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가 1년 전에 비해 약화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9월 전년동월비 2.9%에서 10월에 1.1%로 증가 폭이 축소됨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6월 △6.0%, 7월 △8.1%, 8월 △0.8%, 9월 2.9%, 10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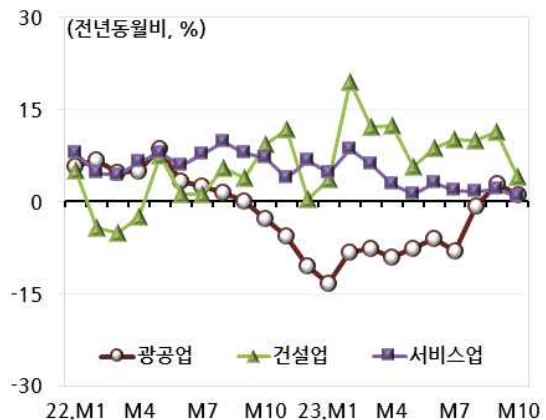
· 전년동월비 10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4.1%(전월비 0.7%)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각각 0.8%(전월비 △0.9%) 및 △0.1%(전월비 △1.4%)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생산 회복 속도가 약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반등 하던 출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수요 여건도 부정적인 모습

- 최근 제조업 생산의 확장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자동차(2.8%), 반도체(14.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13.3%), 통신·방송장비(△22.2%) 등에서 부진하여, 1.2% 증가에 그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6월 △6.2%, 7월 △8.3%, 8월 △0.8%, 9월 2.9%, 10월 1.2%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9월 73.0%에서 10월에 70.3%로 크게 낮아짐

※ 제조업 평균가동률: 6월 71.7%, 7월 69.9%, 8월 73.1%, 9월 73.0%, 10월 70.3%

- 출하증가율이 다시 하락하고 재고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시장 수요 여건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출하(전년동월대비)는 9월에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 들어 다시 1.5% 감소함

※ 출하증가율(YoY): 6월 4.4%, 7월 △5.3%, 8월 △2.2%, 9월 4.7%, 10월 △1.5%

· 한편, 재고증가율은 9월 전년동월비 7.8%에서 10월에 8.5%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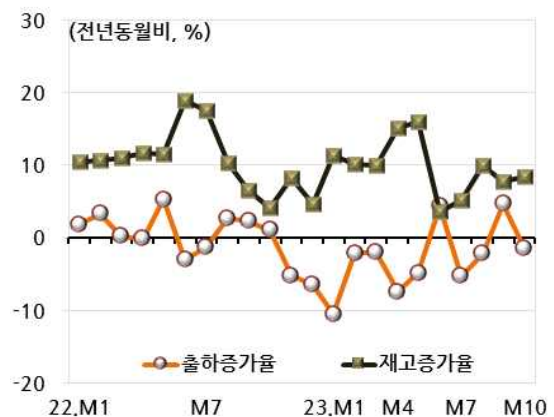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6월 3.6%, 7월 5.1%, 8월 9.9%, 9월 7.8%, 10월 8.5%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건설수주는 일시적으로 반등

- (서비스업)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이 침체되는 모습

· 전월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9월(0.5%)에서 10월에 $\Delta 0.9\%$ 로 크게 하락함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6월 3.0%, 7월 1.9%, 8월 1.6%, 9월 2.1%, 10월 0.8%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6월 0.6%, 7월 0.3%, 8월 0.2%, 9월 0.5%, 10월 $\Delta 0.9\%$

· 전월비 기준으로 10월 중 도소매($\Delta 3.3\%$), 금융·보험($\Delta 1.2\%$), 숙박·음식점($\Delta 2.3\%$) 등이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정보통신(1.3%), 보건·사회복지(0.4%) 등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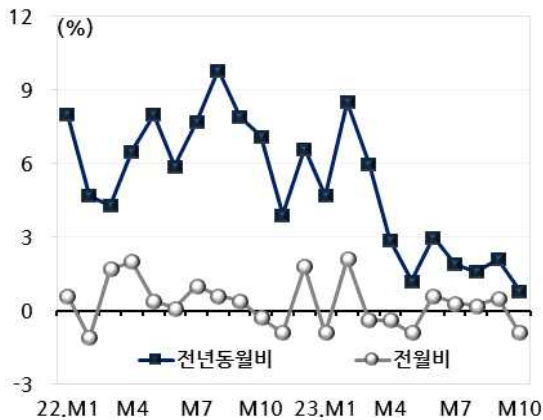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0월 중 토목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건축 부문이 크게 반등

· 10월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건축 부문이 큰 폭으로 반등(48.6%)한 가운데, 토목 부문은 침체($\Delta 23.4\%$)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임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11.9%, 3분기 $\Delta 24.7\%$, 8월 $\Delta 46.6\%$, 9월 $\Delta 0.9\%$, 10월 $\Delta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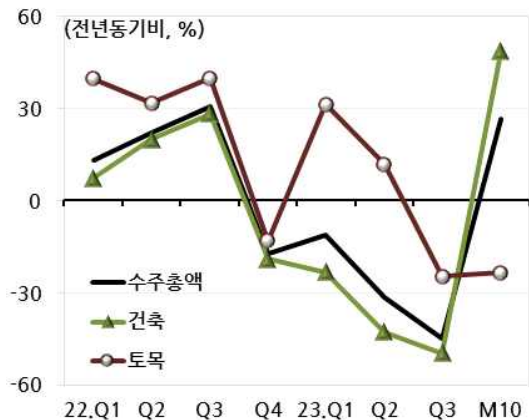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Delta 42.8\%$, 3분기 $\Delta 49.7\%$, 8월 $\Delta 53.5\%$, 9월 $\Delta 43.8\%$, 10월 48.6%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는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 코로나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복원력이 취약해져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세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3.5%로 하락함
- 또한 IMF 전망치(23.10 WEO)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를 상회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한국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5%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2.9%로 하락함
- 나아가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격차(한국－세계)는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Delta 0.3\%p$ 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Delta 0.5\%p$ 로 하락하고, 향후

(2022~2028년) $\Delta 1.0\%p$ 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동인을 해외에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회복력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복원력이 과거 경험상의 강도에 크게 못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상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때, 수출 경기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더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기 간	세계경제성장률 (연평균)	한국경제성장률 (연평균)	한국 — 세계 경제성장률
2003~2008	4.8%	4.5%	$\Delta 0.3\%p$
2011~2019	3.5%	2.9%	$\Delta 0.5\%p$
2022~2028	3.1%	2.2%	$\Delta 1.0\%p$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경제 위기가 있던 연도와 직후 연도는 경제성장률 계산에서 제외.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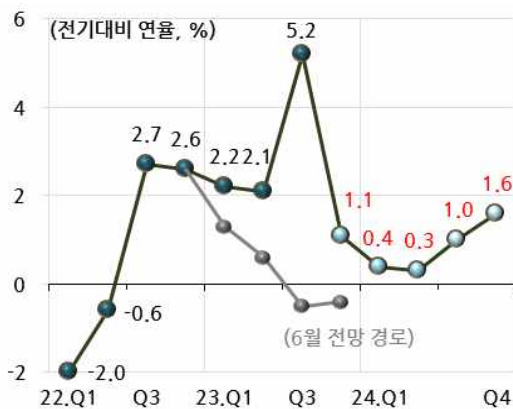
- 미국 경제의 고용 지표의 악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실질 구매력 위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 침체 가능성이 대두

- 미국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3.5%에서 10월 3.9%까지 상승하였으며, 구인일자리수도 1월 1,056만 명에서 9월 955만 명으로 감소 추세임
- 소매판매도 4월~8월까지 증가세(전월비)를 지속하였으나, 10월에 들어 Δ 0.1%의 감소세로 전환됨
-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5.2%의 호조를 보였으나, 11월 기준 주요 IB들의 향후 미국 경제성장률은 4분기 1.1%, 그리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각각 0.4% 및 0.3%의 낮은 수준을 예측함

- 중국 정부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나, 오히려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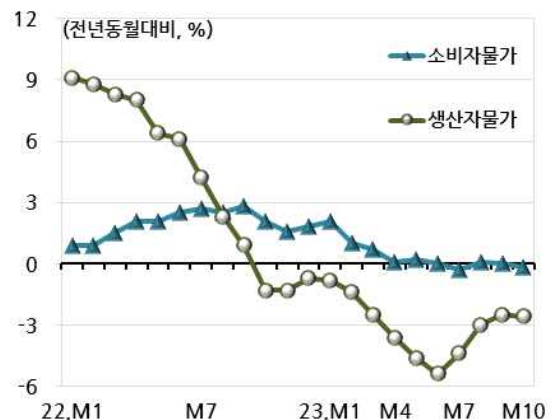
- 다른 중앙은행들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LPR(1년 만기)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함
- 그러나,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Δ 0.2%이며, 생산자물가는 Δ 2.6%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음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BEA, 주요 IB 전망치 평균.

<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國家統計局.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미래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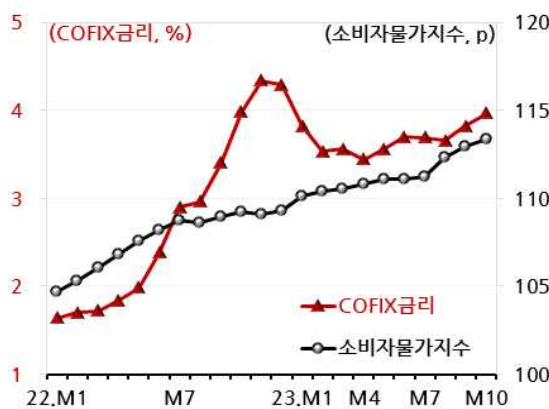
-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대두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추세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2022년 1월 104.69p에서 올해 10월 113.37p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임
- 또한, 시장금리(COFIX금리)도 2022년 1월 1.64%에서 11월 4.34%로 높아졌다가 이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10월 3.97%에 달함
- 고물가·고금리가 동반되면서 가계가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실질 구매력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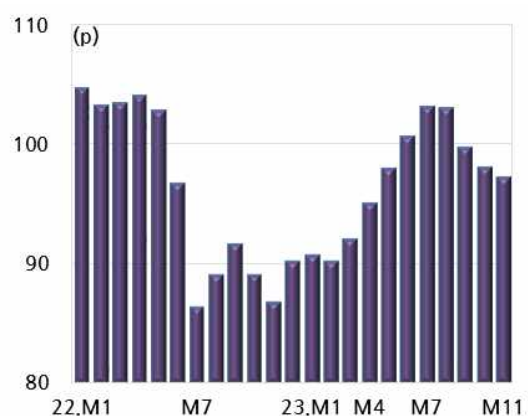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1월(90.7p)에서 7월(103.2p)까지 상승하며 기준치 100p를 상회함
- 그러나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97.2p로 기준치를 하회하는 모습임

< COFIX⁵⁾금리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통계청.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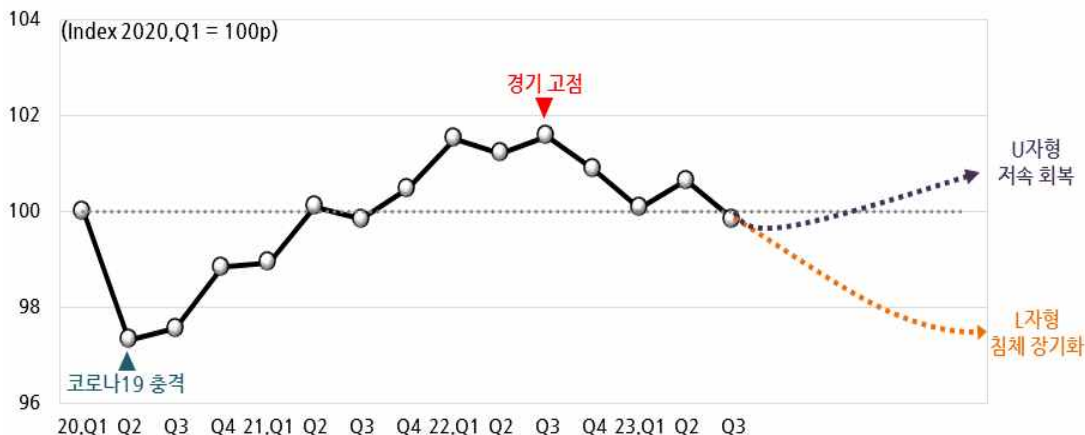
5)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들로부터 신규수신상품 금리 정보를 받아 산출하는 은행의 자금 조달 시 비용을 의미하며, 가계대출 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임.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3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반등세가 미약하고 내수가 부진한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냄
 - 반면,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시장 수요가 여전히 침체되는 모습임

-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전인되지 못할 경우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
 - 'U'자형 저속(低速) 회복(2024년 상저하교) 시나리오 : 수출이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경기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되어 2024년 1분기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임
 - 'L'자형 침체 장기화(2024년 상저하저) 시나리오 :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2024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임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수출 시장 외연 확대) 미·중 경제 전쟁, 중국의 자급화 등의 여건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포스트 차이나 시장 확보 및 선진국 시장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통상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산업 대전환기에 대응하여 현재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조속히 발굴하여 육성하되, 그 과정에서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노동 생산성 제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노동생산성 제고로 대응해야 할 것임
 - 한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 수급 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 (국내 투자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내 기업의 유턴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킬러 규제 해소 및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확대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 (기술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R&D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둘째, 2024년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2024년에도 거시적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미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최근의 기업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여 4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⁶⁾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자금 할당 행위에 보다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금융감독기관들과 더불어 PF 시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2024년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에 적시된 지출 규모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며, 재정 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임

셋째,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공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수출 시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구매력을 가지는 신흥국과 자원 수출국 등에 대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문화 산업의 선진화를 본격화하고, 이를 우리 소비재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6)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한편, 국제 정치·외교적인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GVC 교란에 대비하여 원자재·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확보 노력기 요구됨

넷째,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할인 및 쿠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여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내외 전면적 관광 시장 정상화에 대응하여 내국인의 관광 수요가 해외로 향하지 않고 국내 여행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여행지의 인프라 및 관광 상품 정비 및 개발, 여행 경비 할인 및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나아가, 엔데믹으로의 완전한 전환에 따른 글로벌 관광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 등 우리나라 관광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 사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복지재정지출 집행을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